

Studio DAC:

아트 클래스 - 토크

경계: 기계

일시

2026. 5. 20(수) 오후 7:30-9:00

장소

Studio DAC

두산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2026
3.-6.

두산인문극장
두산아트스쿨: 미술
Studio DAC: 아트 클래스

Studio DAC POST

의심의 매개, SF - 인간과 기계. 그 사이에서 부유하기

장한새

연극 <천 개의 파랑>의 기수 로봇 '콜리'는 2024년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120cm 남짓한 반자동 퍼펫 형태의 로봇. 인간 배우와 로봇 배우는 같은 무대 위에서 호흡하고 공명했습니다. 어쩌면 <천 개의 파랑>은 단순히 기계를 무대 위에 올려놓은 공연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어떻게 연극적으로 감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한 동시대적 SF연극의 사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 속 콜리가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감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을 요구하는 세계 속에서 콜리는 '천천히 달리는 선택'을 합니다. 경쟁과 생산성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 안에서, 기계인 콜리가 오히려 존엄과 감정, 배려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더 이상 SF적 상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현실 속에서도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반려 로봇 '아이보(AIBO)'의 장례식이 열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멈춰버린 로봇을 단순히 고장 난 기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억을 공유했던 존재로 받아들이며 애도했습니다. 절에서는 스님들이 염불을 외우고, 사람들은 로봇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일본 교토의 고다이지 사찰에서는 AI 기반 승려 로봇 '마인더(Mindar)'가 실제 설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기계를 단순한 도구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위로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시대 SF연극은 바로 이러한 관계와 현상에 대한 질문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SF가 미래 기술이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SF연극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 시대 속 인간 감각의 변화'를 다루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기술적 스펙터클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보다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관계의 균열을 어떻게 무대 위에서 감각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여기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만을 중심에 두었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기계·동물·환경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SF연극 역시 이러한 감각 위에서 새로운 무대 언어를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SF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동시대 관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미래 재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계와 공존하는 시대 속 인간의 불안과 고독, 관계와 감각의 변화를 어떻게 '극장적 체험'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장한새(연출가)

극단 배다 대표 및 상임연출

연출 <뼈의 기록><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천 개의 파랑><어부의 핵><왕키><마운트><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외

수상

2021 서울미래연극제 우수상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어쩌면 머지않아 로봇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풍경은 낯선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SF연극을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를 무대 위에서 다시 바라보는 일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요.

이번 아트 클래스에서는 인간과 기계 사이를 부유하는 동시대 SF연극의 감각과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